

재가 노인환자의 방문간호 경험 - 보건소 실습학생 방문대상자 중심으로 -

민소영* · 박숙경** · 박정모*** · 이숙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양상이 고급화, 상업화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Lee, 2002).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증가 및 사고와 재해로 인하여 장기 재가 요양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저소득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병원 방문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제한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일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지원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가정방문도우미, 식사배달, 주간센터, 주간병동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퇴원촉진과 재가복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제도,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간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MOHW, 2001).

방문간호사업은 국민건강관리체계의 한 요소로서 치료

적, 지원적, 예방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그 특성상의 료서비스와 사회적 측면이 조화된 서비스로(Park et al., 2002), 공공보건(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이 담당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질병관리 및 간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MOHW, 2004).

우리나라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1990년대부터 보건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 장애인 등 외상상태로 거동 불편자, 재가 만성퇴행성 질환자, 기타 지역사회 내 건강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수준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대상자들은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Ryu, Myung, & Hwang, 2003). 그러나, 방문간호 전담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주민의 이용 접근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Park & Ryu, 2001; Ryu, Park, Han, & Lim, 2003),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요구나 업무량의 증가추세가 고려되지 않아 적정 방문간호인력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Ryu, Myung, & Hwang, 2003).

지금까지 방문보건 관련 연구는 방문간호의 주요 활동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symin2@hanmail.net)

**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사

***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교수

**** 일리노이대학교 박사 후 과정

영역, 활동범위의 질병 현황 분석, 기존 자료에 대한 이차분석과 관찰 인구, 면적, 지역특성만을 고려한 보건소 모형 개발이나 사업평가(Ryu et al., 2003, Han, Park, Hah, Yoon, & Song, 1995, Ryu, 2001), 그리고 방문간호 학생실습을 통한 경험과 이의 평가 및 태도에 대한 연구(Park, Lee, Min, & Park, 2004; Oh, 2003; Park & Lee, 200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의 대상인 수혜자들이 방문간호 기간동안 겪는 주관적인 경험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상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실습하는 간호학생의 방문간호를 받은 재가노인의 방문간호 경험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보건소 실습학생의 역할과 효과를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03년 3월4일부터 12월15일까지 인천시의 4군데 보건소 실습 중 일주일에 2회 이상 적어도 10주 이상 K 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의 지속적인 방문간호를 제공받은 재가노인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하였다. 각 간호학생은 2주 단위로 변경되었으나 방문대상자에 대한 간호문제 및 간호수행 내용을 그 다음 팀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가정방문 및 간호수행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참여자의 나이는 평균 74세로 성별은 남자 3, 여자 5명이었으며, 거주형태는 2명은 부부만, 2명은 손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4명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다. 대부분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의 질환을 지니고 있었으며 부부만 사는 노인의 경우 부인이 모두 치매를 앓고 있었다. 참여자중 부인이 치매에 걸린 1명의 참여자만이 독립적인 자가 간호수행이 가능하였으며 5명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였고 나머지 2명은 주위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었다.

2. 자료 수집 및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실습 지도를 담당한 연구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실습이 끝난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주로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학기 중에 실습 나온 간호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라고 소개하며 사전에 전화로 허락을 구하자 모두 기꺼이 응하였다. 면담 시작 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과 카asset를 이용하여 녹음할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하여 수집하였는데 주요 연구 질문은 "재가노인의 방문간호 경험은 어떤 것인가?"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질문은 "간호학생들의 가정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호학생들의 방문 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간호학생들의 방문으로 생활양상이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등이었다. 면담은 새로운 주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였으며 소요된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30분이었고, 한 사람당 면담횟수는 1-2회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의 하나인 Colaizzi(1978)가 제시한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인간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인 재가 노인의 방문간호 수혜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분석에 앞서 먼저 참여자의 말을 녹음한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원 자료가 완성된 후에는 모든 연구자가 진술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부분을 밑줄 그어가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후에는 일반적인 언어 형태로 재진술 하면서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모음, 범주로 분류 및 조직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자료들은 다시 재분류 및 조직하는 과정을 거치며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통합적으로 완전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타당도 검증은 위해 참여자에게 분석된 자료를 설명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도구의 역할을 하여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자들은 이미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이 중 1명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자료분석 및 결과진술에 이르기까지 연구자간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의견

을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III. 연구 결과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실습하는 간호학생의 방문간호를 받은 재가노인 8명을 심층 면담하여 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9개의 주제모음과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1).

범주 1 : 고마움

주제 1 :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함

참여자들은 간호학생들이 '남의 할머니, 남의 할아버지(혹은 남의 늙은이)'인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하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참여자의 팔, 다리를 주물러 주고 집안 일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여 시장을 못 간다고 하자 심부름을 대신 해준다고 하니 학생들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젊은 사람들을 봐서 마음이 싱싱해져서 고맙고, 인기척 없는 집에 자신들을 봐주러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고맙았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자신들에게 와 주는 것은 좋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보답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더욱 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냥 저 싱싱한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싱싱해지고... 그러니까 좋고. 와서 당근도 재주고 혈압도 재주고 그러니까 좋고 그러지 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러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을 한 시간 두 시간 붙들어 둔 생각은 없고. 그저 나한테 와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가면은 그냥 그렇게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그 사람들 와서 나한테 해로운 거 하나도 없어. 와서 그렇게 앉았다 가면 대가도 못하는 게 항상 미안하고...”(참여자 5)

“당연히 고맙죠. 지금도 말할 수 없이 고마워요. 천사들을 보내주어 이 한 문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건 이후 말할 수 없어요”(참여자 8)

주제 2 : 서툰 간호기술이지만 많은 위안을 받음

학생들이 가끔 서툰 간호기술로 혈압을 재거나 혈당을 재 때 한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번 바늘을 찌를 때 참여자들은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학교나 보건소에서 확실한 교육을 받고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나, 거동이 불편하여 1년이 다 되도록 병원을 갈 수 없는 처지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수치를 알려 주고 설명 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짐을 느꼈다.

“가끔가다 그런 거는 있더라. 당근 재는 데 한 번 찌는 거 요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당근 재는 기기 그것을 다루는 게 서툴러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 볼 때에 기구 사용법을 확실히 가르쳐줘서 두 번 세 번 찌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참여자 4)

“예전엔 안 앓죠. 그러니까 일 년이 다 되어가도 내가 병원을 못 가니까 뭐 혈당이 얼마나 혈당이 얼마나 그걸 영 알 재간이 없었지.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 시켜서 병원에 가서 얘기하고 그대로 약 타다가 먹고 그랬는

<표 1> 재가 노인환자의 방문간호 수혜경험

| 주제모음 | 범주 |
|--|-----|
| 주제 1 :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함 | 고마움 |
| 주제 2 : 서툰 간호기술이지만 많은 위안을 받음 | |
| 주제 3 : 학생방문이 기다려지고 오지 않으면 쓸쓸해짐. | 의존함 |
| 주제 4 : 학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기대함 | |
| 주제 5 : 학생과 자식의 모습이 교차하며 남보다 못한 자식에 대한 원망이 커짐 | 서러움 |
| 주제 6 : 자신의 노쇠함이 서글픔 | |
| 주제 7 : 일관성 없고 불공평한 나라의 복지혜택이 아쉬움 | |
| 주제 8 : 방문자체로도 만족하며, 세상의 고마움을 경험함 | 존재감 |
| 주제 9 :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자신이 살아 있음을 경험함 | |

데. 그렇게 와서 체크해 주고 그러면서부터는 아, 내가
형당이 억따다. 형장이 억따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다
받치니까 한겨 마음이 가아앉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애.
궁금증이 풀리니까”(참여자 5)

범주 2 : 의존함

주제 3 : 학생방문이 기다려지고 오지 않으면 쓸쓸해짐
특히 찾아올 사람이 없는 매일 같은 일상에 간호학
생들의 정기적인 방문은 참여자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
왔다. 학생들이 온다고 하는 날이 기다려졌고 오지 않을
때는 방문을 다녀간 학생들의 안부가 궁금했으며 마음
한 쪽 어딘가가 허물어지는 것 같기도 하였다. 특히 방
학이 되면 간호학생들의 가정방문이 한동안 끊기게 된다.
이럴 때 참여자들은 간호학생의 방문을 더욱 기다리며
쓸쓸함을 경험하였다. 학기 중에도 매 주 방문을 기다리
며 생활했는데 방학이 되어 학생들의 방문이 오랫동안
없자 그 쓸쓸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래서 간호학생들
의 방학이 아예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방
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이전과 달리 길게 느껴지는
여름과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학생들이 와서 있었던 것이 상당히 좋았고 기다려지
지. 입주일에 한 두 번씩은 왔는데 ‘균요일 날 옵니다’,
‘뭇일 날 옵니다’ 그러면 기다려지는 거지. 학생들이 지
금 안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요. 12월초까지 나오고
한 동안 안나왔잖아요. 나오다 안 나오니까 궁금하고 좋
지 않고 씁쓸하지. 요즘 한 쪽 구석이 허물어진 것 같
아”(참여자 1)

“학생들 나오다가 방학이어서 안나오니까... 예. 내 목
심처럼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뭐. 내 목심이지.
그 학생들 또 안 올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참여자 3)

주제 4 : 학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기대함

참여자들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기대하였
다. 이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집에 오면 자신들도
아프다며 집안일 도와주기를 꺼려하였는데 간호학생들은
다르게 느껴졌다. 간호학생들의 정기적인 방문은 이들에
게 생활의 위안이자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학교
와 보건소가 연계하여 이러한 가정방문을 계속적으로 유
지했으면 하는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

“값사한 땀은 땀은 다 드는 수가 없고, 앞으로 계속해
서 이러한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보다 더한 사람한테도 갔으면 해요”(참여자 1)

“나는 또 걱정이 되는 거. 벌써 방학한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냐. 이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그걸
게 세상 살아. 그러니까 친척이 있다 해도 간호원 아가
씨들만 못한 거고, 뭐 친척이 많다 해도 그 봉사원 한
구에 한 번 등니는 것보다 덜할 때가 많지. 친척들 찾아
뵙게시키 수도 없고”(참여자 6)

범주 3 : 서러움

주제 5 : 학생과 자식의 모습이 교차하며 남보다 못 한 자식에 대한 원망이 커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있음에도 함께 살지 않고
부부만 혹은 혼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생면부지인 자신
들을 찾아와 도움을 주는 간호학생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자녀와 손자들을 떠올렸다. 참여자들은 젊은 시절에 힘
든 일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며 키웠지만 이
제 나이 들고 노쇠하여 정작 자녀의 도움을 받을 때가
되니 함께 살기는커녕 찾아와 주거나 돌봐주려는 자식
하나 없는 것이 매우 원망스러웠다. 어떤 참여자는 오히
려 냉대까지 한다며 현대판 고려장이 따로 없다고 하소
연하였다. 이러한 자식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신체에 대
한 서러움은 간호학생들을 보며 더욱 커져만 갔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녀가 이혼 후 자식까지 자신들에게 말
기고 소식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
고 자식이 원수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제 제일 당당한 문제가 우리 며느리가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내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선생이거
든. 그런데 부모에게 아주 냉대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다 자신의 아이 2명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등
어다보지도 않으니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지금 이것
도 고려장이야, 옛날 고려장의 모습보다 덜한 것뿐이지
고려장이랑 마찬가지로”(참여자 1)

“요새 젊은 애들은 그 부모의 은공을 몰라봐요. 그 전
이 제일 당당해. 제일 당당한 것은 우리가 그냥 어두운
시절에 태어나서 어두운 시절을 겪으면서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돈 몇 푼 더 받은 나고 전쟁터에 나가 생명을 걸

고 그래서 애들 고등학교 교육까지 시키려고 열심히 했는데... 여하튼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야 죽을 수도 없고 굉장히 아속하지요. 애들도 꼭 내가 오라고 해야 오고 가라고 해야 가고 그러지. 지등 스스로 한 번 오는 적이 없어요. 전하를 내가 해 가지고 오고 그대, 요즘은 딸들도 내가 가진 돈을 빌려가고..."(참여자 3)

주제 6 : 자신의 노쇠함이 서글픔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노쇠함 때문에 자신의 남은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들은 이렇게 지내다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이라 하며 아프지 않고 편하게 여생을 마감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죽음에 따르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특히 다양한 노인성 질환과 신체의 노쇠함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가사일조차 수행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참여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절망스런 생각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래서 한 참여자는 노인의 이러한 기운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염려되어 빨리 집에서 나가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글픈 생각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에 놓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참 뭐야 학생들이 그거 빨래는 많이는 없지만 내꺼... 그거 한 번씩 두 번씩 주무르면 좋겠다고. 그거 조금 해줬으면 싶거든. 내가 안 아픈 적에는 손으로 빨는데 이제 아프고 당기니까. 내가 속옷 같은 거 쥘 주무르고 나면 더 쑤시고 아퍼 기운이 없으니까"(참여자 2)

"학생들 오면 나하고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니들끼리 나가서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러라고 해. 대개 난 그런다고. 학생들이 오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늙은 사삼하고 오래 있으면 안 좋아"(참여자 5)

"아, 이 세상에 내가 쓰러지면 죽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할아버지도 심장병이고 나도 심장병이거든. 나는 당뇨병도 있고 해서 다 된 거야. 꼬여서니까. 그러니까 가엾히 드러누워서 아, 이러다 숨을 내쉬면 죽는 거지. 아프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참여자 8)

주제 7 : 일관성 없고 불공평한 나라의 복지혜택이 아쉬움

참여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고 융통성 없는 지원책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한 참여자는 수입이 전혀 없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아들, 딸 들이 있는 관계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정 기간 가정 도우미를 통해 도움을 받아온 거동 불편한 참여자는 해가 바뀌면서 도움 대상에서 탈락되어 매우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였다.

"내가 저소득층이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손들 재산 조회해 보니까 할아버지 자손들은 다 능력이 있다 이거야. 없는 본도 있지만 능력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그게 안됩니다 그러더라고. -중략- 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양반라(치매 걸린 부인) 사는 것도 지금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이런 식정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거야."(참여자 6)

"작년까지는 공공근로(가정도우미)라고 해서 자매님들이 일주일 두 서 번씩 와서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 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게 아파 딱 끊어진 모양이야. 작년 12월로 끝났는데 새해에는 그게 다시 책정이 안되고 다른 사람들 책정해서 내게는 안오 내뱉."(참여자 4)

"또 내가 딸썩드리는 것은 보건소나 행정 계통의 기관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난"(참여자 1)

범주 4 : 존재감

주제 8 : 방문자체로도 만족하며 세상의 고마움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간호학생들의 가정방문 자체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고 있었다. 간호학생들이 집에 와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집에 와주는 것도 고마운데..."라고 생각하며 참여자의 집에 그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 간호학생의 방문은 방문 그 자체만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이유로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어 살고 있는 참여자에게 사회와 의사소통하는 창구가 되는 큰 의미로 그들에게 경험되었다.

IV. 논 의

“학생들이 오면 기분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자주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건강에 대해) 나 자신도 조심을 하게 되고, 좀 그래. 그 전보다는 마음이나도 가벼워진 것 같아 누가 그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늙은이들... 누가 아이고. 내 그 생각을 했어. 참 어떻게 됐든지 복 받겠구나. 그랬어. 진짜 고맙고 먹안하고. 세상에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참여자 5)

“고맙기만 해요.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내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그러면 주물러 주고 참 잘해 줬어요. 나는 뭐 텃밭에 없고 고맙기만 해요. 오로지 탁 주기만 해도 그냥 고마워요 그냥... 무조건 고마움 따습이예요. 탁주기만 하면...”(참여자 8)

주제 9 :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자신이 살아있음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간호학생들의 가정 방문이 외로움, 쓸쓸함 등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인생의 활력소가 된다는 경험을 표현하였다. 학생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혈당이나 혈압을 측정하고 물리치료기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인 간호를 해 주기는 하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간호행위보다는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참여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잘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함께 대화 나누는 자체로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다.

“학생들이 오면 주로 혈당도 재고, 당도 재고. 내가 어깨도 아프고 걸러거든. 그것도 해 주고. 네. 그건 뭐 흔라가 거의 없고 어깨 주물러 주면 더 시원하고... 그게 나한테 즐거운 시간이죠. 적간 같은데 하루 종일 사람이 없다가 그것들이 와서 재잘거리고 그러면 귀엽죠. 다양한 생략에 생기를 준다고 할까?”(참여자 4)

“학생들이 오면 주로 저거 타가지고(물리치료기구), 저거 하는 거 도움 받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 탔다가 가면 마음이 조금 괜찮죠. 혼자서 누워 있는 것보다 대화하고 싶으니... 우리 처가 정신이 용비르면 대화를 하고 나가지 않음 텐데 자주 나가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 딱 하내지. 그러니. 나 혼자서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대화 나누니 살아있는 것 같지...”(참여자 3)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간호학생의 가정방문을 통한 경험은 9개의 주제모음으로부터 ‘고마움’, ‘의존함’, ‘서러움’, 그리고 ‘존재감’의 4개 범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신들을 방문하는 간호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며 횡수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식과 직접적인 도움이 없는 정부가 원망스러웠고 일상생활의 작은 집안 일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노쇠함에 서러웠지만, 간호학생들의 방문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정서적인 지지가 되었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그들이 살아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족뿐 아니라 친척, 이웃, 친구 등 사회적 지지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 그리고 소외감을 줄이고 의존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Kim, Sung, Park, Lee, & Choi, 2002).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집 밖에서 상호작용을 형성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수동적인 자세에서 상호작용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가족이 노인을 위한 지지의 원천이자 상호작용의 근본이지만 독거노인 혹은 부부만 살고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의지할 수 있는 가족자원이 부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학생의 방문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외부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와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감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양가족의 부재로 혼자 기본적인 가사관리를 수행하는데서 부딪치는 신체적 불편감에 자신의 신체가 서럽다고 표현하였다. 가족이나 정부의 정서적인 지지의 부족은 이러한 서러운 감정과 함께 신체적 불편감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연구들과(Yaung, Kim, & Kim, 2001; Song & Kim, 2000; Hwang, 1998)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Park, Jung, Ahn, & Shin, 2004) 외로움이

38.8%의 건강행위 예측요인이 되어 외로움을 덜 느끼는 노인일수록 건강유지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정서 상태가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과 건강유지 행위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불편감은 재가 노인환자에게 심리적인 지지와 똑같이 중시하여야 함을 이 연구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Mun(2001)이 재가노인의 삶의 질은 이웃관계와 가족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신체상태와 기능은 가장 적게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는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낮은 신체기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집 밖의 출입이 거의 차단되어 있어 다른 측면에서 참여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부양가족 없이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는 독거노인에게 매일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인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일상생활 수행에 대한 간호요구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Park, 2004; Lee, Hah, & Kim, 2003; Lim & Lee, 2003). 이에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에는 지속적인 물리 치료와 통증완화를 통해 신체적 불편감 완화 및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가정방문 도우미나 봉사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간호학생들의 가정방문을 경험하며 그들에게 생기가 생겨 삶의 활력소가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을 면담을 통하여 연구한 Shim(200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연구자와 몇 차례 대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노출하며 그들이 관심을 받고 있음을 경험하였고 이런 경험은 자신의 질병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얻은 인식이 있었는데 즉,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타인, 사회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 있었다 한다. 즉 단 1명이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주고 대화를 나누면, 노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남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간호학생일지라도 봉사 프로그램이나 교육프

로그램의 대안으로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재가 노인 환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학생의 방문간호에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임을 경험케 하는데 방문간호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간호학생의 지역사회 보건소 실습을 계획하는데 있어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상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실습하는 간호학생의 방문간호를 제공받은 재가노인의 방문간호 경험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보건소 실습학생의 역할과 효과를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8명의 참여자로부터 반구조적인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978) 방법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9개의 주제군과 4개의 범주, 즉 '고마움', '의존함', '서러움', 그리고 '존재감'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신들을 방문하는 간호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며 헛수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식과 직접적인 도움이 없는 정부가 원망스러웠고 일상생활의 작은 집안 일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노쇠함에 서러웠지만, 간호학생들의 방문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정서적인 지지가 되었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였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교육 측면으로 재가노인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참여자의 의미 있는 경험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실재에 근거한 간호중재를 계획할 수 있으며, 간호정책 측면으로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됨을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방문간호를 받은 대상자들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후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간호를 받은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지역사회 보건소 실습에 있어, 방문간호가 실습학생이나 방문 대상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실습 일정 및 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48-7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an, K. J., Park, S. A., Hah, Y. S., Yoon, S. N., & Song, M. S. (1995). Development of a Home Health Care Model in the Public Health System-Visiting Health Service by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 Korean Acad Nurs*, 25(3), 472-484.
- Hwang, M. Y. (1998).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informal support networks of the urban low-income elderlyes*. Unpublished maste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G. T., Sung, M. O., Park, B. G., Lee, G. N., & Choi, H. K. (2002).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Paju : Yangseowon Publishing company.
- Lee, S. H. (2002). *A Study of the Curr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Home Visiting Health Services from the Health Center for the Health Promotion of Old People*. Unpublished manuscript,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Kongju.
- Lee, S. W., Hah, Y. S., & Kim, K. S. (2003). Home Nursing Care Needs of the Elderly.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11(2), 206-229.
- Lim, U. S., & Lee, K. J. (2003). Effect of physical ability,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low income elders living at home. *J Korean Geronto Nurs*, 5(1), 38-49.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Long term Developmental Methods for Magnification and Fixation of Home Health Car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ress.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4). *The management guideline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ress.
- Mun, M. J. (2001). A Study 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home Residents. *J Kor Rehab Nurs*, 4(1), 46-57.
- Oh, J. J. (2003).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in Public Health Center. *J Korean Comm Nurs*, 14(2), 299-311.
- Park, E. S., & Ryu, H. S. (2001). A study on developing strategy for expanding role of public health nurse. *J Korean Acad Nurs*, 31(4), 712-721.
- Park, J. H., Yun, S. Y., Kim, M. J., Han, K. J., Hong, K. J., Park, S. A., Whang, N. M., & Heo, J. S. (2002). Discussion on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Home Nursing Care. *J Korean Acad Nurs*. 32(2), 855-866.
- Park, J. M., Lee, S. J., Min, S. Y., Park, S. K. (2004).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in Visiting Care Practice. *J Korean Comm Nurs*, 15(2), 323-331.
- Park, J. M., & Lee, S. J. (2002). Evaluation of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and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at Public Health Centers. *J Korean Comm Nurs*, 13(1), 161-170.
- Park, S. Y. (2004). *A Study about the Effect of Independent Living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the homebound elderl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npublished maste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Y. J., Jung, H. K., Ahn, O. H., & Shin, H. U. (2004). The Relationship of Loneliness, Health Behavior and Self-Esteem in Elderly People. *J Kor Geronto Nurs*, 6(1), 91-98.
- Ryu, H. S. (2001). The Effects on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for Community Based Disabled Persons. *J Korean Comm Nurs*, 31(6), 1098-1108.
- Ryu, H. S., Myoung, J. I., & Hwang N. L. (2003) An Estimation on the Need and Supply for Visiting Nursing Services of Health Center in Seoul. *J Korean Comm Nurs*, 14(4), 75-85.
- Ryu, H. S., Park, E. S., Park, Y. J., Han, K. S., Lim, J. Y. (2003). A Workload Analysis of Visiting Nursing Service Based on a Health Center in Seoul. *J Korean Acad Nurs*, 33(7), 1018-1027.
- Shim, M. S. (2004). *Health Experience of Low Income Elderly Living alone : from the perspective of Newman's Praxis Method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Gwangju.
- Song, N. H., & Kim, S. M.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J Korean Comm Nurs*, 11(1), 158-171.
- Yaung, S. H., Kim, S. M., & Kim, S. Y. (2001). A study of home health care need of the Elderly. *J Korean Geronto Socio*, 21(1), 31-46.

- Abstract -

Experiences on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among the Elderly in Community

Min, So Young** · Park, Sook Kyung**
Park, Jeong Mo*** · Lee, Suk Jeo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xperiences in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among the elderly in community provided by nursing students.

Method: This is a phenomenological study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community-based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the 4th of March to the 15th of December 2003.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 patients on subjective experiences.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laizzi's method, in which meaningful statements were extracted. **Result:** Four categories were identified from nine theme clusters. The four categories were 'thankfulness', 'dependence', 'sorrowfulness' and 'the sense of being'.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e importance of visiting nursing service for the elderly in community

Key words : Home nursing care, Life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 Se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Kyungin Woman's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University of Illinois